

“北, 러에 무기 제공하면 대가 치를 것”

美 국가안보보좌관 엄중 경고

“양국 군사 지원 논의 진행 분석”

“北 설득할 기회 계속 모색할 것”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에 관한 북-러 간의 논의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공개적 약속을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지 말 것을 북한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러시아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북한의 의도는) 김정은(북한 국

무위원장)의 마음 속에 있을 것”이라며 직답을 피한 뒤 “우리는 북한이 이런 조치(대러 군사지원)를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도록) 설득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떤 국가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있을 수 있는 후과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우리는 역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적절하게 조율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과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는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면서 “이것은 계속 우려되는 사안이고 우리는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에이드린 윌

슨 대변인도 전날 뉴욕타임스의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연합뉴스 질의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듯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적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변인은 이어 “지난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판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며 “우리는 김정은이 러시아에서의 정상급 외교 접촉(leader-level diplomatic engagement in Russia)을 포함해 이런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월복 주한 미군인 트래비스 킹 이병 사안이 북러 안보 밀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두 사안은 관련돼 있지 않다”면서 “킹 이병에 대해 우리는 정보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러 간 안보 등 관계 심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면밀하게 주시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래비스 킹 이병 문제와 관련, “몇 주 전 말씀드린 이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은 북한의 이런 발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교황 지지 미사 5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지지하는 미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가톨릭 사제들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예비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허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교황에 대한 폭언을 수년간 지속하자 교황이 즉위 전까지 26년간 봉사활동을 했던 빈민가를 찾아 지지 미사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美 대선 불복 ‘의회난입’ 주동자 징역 22년 선고

손가락 V자 만들며 법정 떠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불복한 이들이 저지른 ‘1·6 의회 난입 사태(2021년)’를 선동하고 조직한 주모자 중 한 명이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5일(현지시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회 난입을 주도한 극우 성향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의 전 리더인 엔리케 타리오(39)에 대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1심에 종결된 1·6 사태 관련자에 선고된 형량 중 가장 무거운 것이다. 종전 최고형량은 또 다른 극우 성향 단체 ‘오스 키퍼스(Oath Keepers)’의 설립자 스투어트 로즈 등에게 선고된 18년이였다.

오랜지색 점수복 차림으로 법정에서 등장한 타리오오는 이날 재판에서 1·6 사태 당일 군중들이 법 집행 담당자들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 “극도로 부끄

럽고 실망했다”면서 (2021년) 1월 5일 발생한 일은 국가적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형 선고 후 잠시 고개를 떨궜지만 법정을 떠나면서 손을 든 채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만들어 보였다고 AP는 전했다.

타리오의 변호인들은 그가 사태 당일인 2021년 1월 6일 워싱턴에 없었다며 소요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진행한 티모시 판사는 그가 1·6사태의 “궁극적 리더”이자 “혁명적 열망으로 동기부여된 궁극적 조직자”라고 판단했다.

1·6 의회 난입 사태는 2020년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의회 의사당 건물에 난입한 사건을 말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사태 며칠 전에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었다”며 “오는 1월6일 워싱턴DC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연합뉴스

러 바그너그룹, 다른 용병기업이 인수하나

WSJ, “레두트, 대원 인수 시도”

러시아의 다른 용병기업이 지도부가 와해된 바그너 그룹 소속 대원들의 인수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러시아 국방부와 가까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용병기업 ‘레두트’(Redut)는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바그너 그룹 용병을 상대로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레두트는 2008년 러시아 공수부대와 정보장교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민간 용병·보안 회사다.

설립 이후 주로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 기업 시설과 외교공관을 경비하는 역할을 맡

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엔 각종 전투 작전에 투입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레두트를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 단체가 여전히 러시아 군사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바그너 그룹에서 빠져나온 한 인사는 지난 7월 영국 의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후원자로 유명한 에너지 재벌 게나디 티멘코가 레두트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레두트가 바그너 그룹 대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은 러시아 국방부를 향한 바그너 그룹의 적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내에서 절대적 카리스마를 가졌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국방부 지도부와 갈등을 겪어왔고, 이는 무장 반란 시도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연합뉴스



태풍 댈친 中푸젠성 고립 주민 구출 5일 태풍 ‘하이쿠이’가 몰고 온 폭우로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의 한 마을이 물바다로 변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이재민들을 보트에 태워 구조하고 있다. 푸저우시 일부 지역에서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연합뉴스

日 수산물 가격 하락...“중국 수입금지 영향”

중국이 지난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일본 시장 내 일부 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지난 5일 여당인 자민당 회의에서 수산업자를 상대로 벌인 청취 조

사 결과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도쿄 도요시 시장 등 대도시권의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는 방류 전과 후의 가격에 별 변화가 없었지만, 홋카이도·아오모리·이와테·후쿠시마·이바라키·미야자키·가고시마 등 지방에서는 가리비·해삼 등 일부 수산물의 거래 가격이 하락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이와테현에서

8월 말 가리비 거래가는 8월 중순보다 12%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수산청의 현지 청취조사에서도 광어 등은 방류 전후에 거래 가격에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수산청 당국자는 “중국의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작년 대중국 수산물(식품) 수출액 836억엔(약 7천565억원) 가운데 가리비는 439억엔 규모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해삼도 98억엔으로 10% 이상을 차지한 품목이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원·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원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